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본격화

건물 10채 매입 보수·정비

전시 공간·모자 박물관 등 조성

뉴트로 관광 거점 탈바꿈 박차

목포시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매입 건물들을 활용한 재생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국내 최초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제 718호)로 지정된 만호·유달동 일원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근대건축자산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공적 활용이 가능한 건물 10채를 매입해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와 항구 축제, 문화제 야행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매입 건물들을 관광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은 K-TROT의 본향인 목포의 영향성을 콘텐츠로 한 전시·체험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며, 오는 2022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100년 전 목포에서 가장 변화했던 조선인 가게인 구 갑자옥자점과 우측에 맞닿은 구 아마하 선외기 등 건물 2개소를 세계모자박물관으로 조성해 상징적 가치를 되살릴 계획이다.

1950년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옛 대광전자상가 건물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평반점'의 세트장으로 꾸며져 한창 촬영이 진행 중이다. 화평반점은 목포에서 모든 촬영이 진행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옛 유달원예사와 아이스월 건물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문화도시 사업 현장으로 활용된다. 옛 건물은 각각 3D목공소, 음반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팝지락실습실로 조성돼 예비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특목특히 창출할 전

망이다. 옛 평화문구점과 포도원슈퍼는 각각 건물 철거와 정비를 통해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며, 옛 더까베는 주전부리 3중세트(목화솜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침) 판매 공간으로 재탄생돼 이달 중 운영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유달초등학교와 근대역사관2관 사이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지난 7월 공모와 발표 심사를 통해 운영자와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는 (주)마술여행으로 '마술카페'라는 테마로 공간을 꾸며 마술 체험과 교육, 마술 소품 판매, 목포관광지를 디자인한 커피 판매 등을 추진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도시 목포로 시간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가을, 전국에서 가장 생생한 뉴트로 감성을 목포에서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무안군 지적자료 시스템 기능 개선 완료

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새단장

무안군이 군의 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사진)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지적자료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은 지난 2008년부터 제작된 항공영상 및 용도지역지구 관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토지관련 속성정보(지번, 면적, 공시지가 등)나 토지이용계획 저축여부를 신속히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군은 기존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이미지 새단장 ▲연도별 무안군 항공영상 및 주요사업지역 드론영상 촬영분 탑재 ▲지번, 도로

명, 건물명 등을 자연어로 빠르게 검색하는 통합 검색 추가 ▲도로 골작 등에 활용할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신규 구축분 갱신 등 현안업무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보강했다.

군정을 찾는 한 지역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항공사진을 통해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민원 처리를 받았다"며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2년에도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군 전체 논 공동 항공방제로 병충해 잡는다 고천암 들녘서 항공방제 발대식



지난 7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고천암 들녘에서 열린 공동 항공방제단 발대식에서 관계자들과 항공방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벼 병해충 전체 논 공동 항공방제로 잡는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해남군 모든 벼 재배면적을 항공방제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고천암 들녘에서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과 함께 열린 이날 시연회에는 유인헬기 2대와 드론 20대를 이용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해 병해충 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해남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벼 재배지에 대한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내 벼 재배 전체 면적에 대한 전면적 방제를 하고 있다.

일반 벼 1만6940ha를 포함해 친환경 재배 3230ha 등 총 2만170ha 전 면적에 긴급항공방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군비 27억여원을 비롯해 농협 해남군지부의 협조를 얻어 총 39억여원이 투입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

25㎡·44㎡ 2개 유형 150세대 조성

영광군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대마산단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응,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은 연면적 7500㎡, 총 150세대,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다. 지역 전략산업 청년 중산자의 여건·수요를 고려해 25㎡와 44㎡ 등 2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이런 공모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고 영광군은 사업비 지원, 입주자 추천 등을 추진해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 기반 시설이 열악해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으로 각 기업의 청년층 인력난 해소와 함께 근로자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영광군이 이모빌리티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목포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추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목포시에도 유해물질로 오염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세탁소 건립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산단 내 작업복세탁소 건립과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산단 내 사업장의 세탁물 관리와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일반사업장과 유해사업장의 세탁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용역은 대양산단과 산정농공단지, 삼진산단, 세라믹산단 등 목포지역 산단 노동자들의 오염된 작업복 세탁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동규(정의당) 시의원이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건의 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에서 취급하지 않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노동권익센터,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지난 6월 산정·삼진산단

노동자 등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작업복 세탁 문제의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7%가 "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한다"고 응답해 작업복 세탁 과정의 유해물질로 인한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지역 산단 노동자들의 특성상 작업복세탁소 건립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면서 "세탁소 운영의 종합성과 적절성을 판단해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영암군 24억원 들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영암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복지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은 2021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4억원(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1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구간은 대불산단과 대불 주거단지 인접 경계지 및 진입로 주변으로 1구간 소통과 상생의 상징인 왕인박사의 거리, 2구간 서남해안 관광·레저의 보루 솔라시도 거리 조성, 3구간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또 지난해 공모 선정된 복합문화센터는 내년 하반기 준공으로 근로자 역량강화실, 작은영화관, 공동세탁소, 안전체험교육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깨끗한 작업복을 지원해 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주거·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불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의 근로 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